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64 Tel. 02. 765. 30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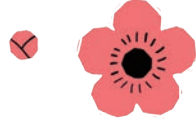
01

2014 LVol. 531

시라카와고

Photo: Kazuhisa Ishikawa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주대한민국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벳쇼 코로(別所浩郎)

작년은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한 양국의 많은 분들이 일한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50주년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50주년 기념행사로 등록된 이벤트는 일한 양국에서 44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매일 어딘가에서 반드시 이벤트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활동에 뒷받침되어 일한 양국 정부도 50주년을 계기로 3월의 일한중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방위, 경제·무역, 환경, 관광, 교육, 과학기술, 농업,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료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실무적인 협력도 추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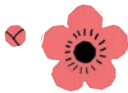
작년 6월 22일 일한 양국에서 같은 날 개최된 50주년 축하행사에는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도쿄에서 아베 총리가 참석하여 일한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약 3년 반 만의 일한중 정상회의와 일한 정상회담이 이곳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 이 표어에 담긴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부임한 이래 “일한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일한 양국은 공통의 이익을 찾고, 그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 노력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의 간지(干支)는 ‘원숭이(申)’입니다. ‘申’이라는 글자는 ‘뽀아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원에 걸맞게 일한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에 대신합니다. 올해도 계속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 한일포토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일본문화원 리포터 문혜정

2015년 12월 12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2015 한일포토콘테스트’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2015 한일포토콘테스트’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1,150여 명이 2,100여 점의 작품을 응모했다. 수상작품 총 24점은 모두 일본과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었으며, 수상자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시상식에는 한국관광공사,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양국의 여러 기관과 공동주최 기업의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수상작품의 선정 이유와 각 사진에 담겨 있는 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이자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인 조세현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 종료 후, 이번 콘테스트 수상작품이 전시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에서 리셉션이 진행되었다. 작품에 담긴 사연을 듣기 위해 수상자 여러분께 인터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한일포토콘테스트 응모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상자도 있었고, 시상식을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현(福島県)과 아이치현(愛知県)에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아준 일본인 수상자도 있었다. 일본 전국에 12개 밖에 남아있지 않은 천수각(天守閣)이 있는 시마네현(島根県) 마쓰에성(松江城)의 모습을 촬영한 어느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과거 도쿄에서 유학시, 자주 가던 신주쿠(新宿) 오모이데 요코초(思い出横丁)를 찍은 수상자는, 당시 우연히 찍은 사진의 모델이 된 외국인 부녀(父女)와 인연이 되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는 훈훈한 뒷이야기도 들려주었다.

‘2015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의 지방여행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사토 마사루(佐藤勝)



제주도 주상절리



속리산 속리축전의 줄타기 공연



봉수산 임존성

지난해는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에 즈음하여, 이를 계기로 일한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일했던 1년이다.

원래 일한 간의 문화교류에는 장구한 역사와 폭넓은 국민 간의 교류가 존재했는데, 우리 공보문화원에서도 이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무용, 샤미센(三味線), 고토(琴) 등의 전통예술 교실과 계절마다 일본문화 소개, 가요, 일본어 스피치, 연극대회 등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는 수많은 50주년 기념행사들이 열렸는데, 일한 양국정부가 승인한 사업만 해도 440건이 넘었다. 매일 1건 이상의 기념행사가 일본이나 한국의 어딘가에서 개최된 셈이다.

다양한 차원과 폭넓은 분야에서의 이런 노력은 양국 간의 교류촉진, 상호이해 증진, 우호관계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회로, 앞으로도 이 같은 교류사업을 통해 양국의 우호의 고리가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하며 공보문화원도 더욱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이처럼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일본문화를 한국에 소개해 나가려면 먼저 한국 사회, 풍토,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부임 후 최대한 많은 지방을 여행하려 힘썼다. 지면 관계상 그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인상에 남는 경험에 대해 언급하련다.

우선은 일본과 인연이 깊은 백제다. 부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인데, 그 때의 건축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파괴된 것이 많았다. 정립사지 석탑과 궁남지, 익산 미륵사와 왕궁리 유적 등은 예외적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주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백제 제25대 무령왕릉에 매장된 관에 당시 나라현(奈良縣)의 고야산(高野山)에만 자생했던 목재가 쓰였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 옛날 인적 교류의 증거로 여겨서다. 신라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최후의 보루였던 산성이 충남 예산군 소재의 봉수산(鳳首山) 중턱에 있는 임존성(任存城)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봉수산은 높이 483.9m로 산록에는 휴양림과 숙박 시설도 있었다. 내가 갔던 날은 마침 날씨가 맑아 40분 쯤 걸려 임존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백제복국(復國)운동기념비도 있고 가볼 만한 산성이었다.



한라산 등반



설악산



내장산

백촌강 전투는 일본에서 고대사로 배우는 유명한 역사적 사실 중 하나이지만, 그 장소는 지금까지 금강 하구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아산만에 면한 당진시의 해변 부근이라는 학설이 발표되어, 양국의 교류 역사는 앞으로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바가 크다고 느꼈다. 또 경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와당에 표현된 ‘신라의 미소’는 유명하거니와,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마애불이 있다기에 가봤더니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 놀라웠다.

내가 사는 서울도 성곽 도시로 정취가 있는 곳이다. 고구려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건국한 이래의 요지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이만큼 위용이 있는 산들로 둘러싸인 수도는 드물다는 생각이다.

한국에 온 뒤로 나는 등산에 취미를 붙여 지금까지 설악산, 한라산, 계룡산, 내장산, 마니산 등에 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한국 사람들이 어째서 그토록 등산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서였지만, 지금은 산정에서 바라보는 멋진 단풍 경치 등을 보고 싶어 오르고 있다. 산꼭대기에 도달하면, 그야말로 그 때까지의 피로가 싹 가신다.

속리산 법주사에는 현존하는 한국 유일의 목조 5층탑 등의 볼거리가 있다. 부근에는 북으로는 한강, 남으로는 낙동강, 서쪽으로는 금강의 원류가 흐르고 있어 이 산을 차지하는 사람이 곧 한반도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의 전략적 거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그 지방에 가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다.

일본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계기는 관광과 스포츠, 자연, 역사, 문화 혹은 국제 정치 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나는 역사와 자연을 통한 관심이 강하다. 여하 간에 어떤 계기라도 좋으니,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고, 경험’함으로써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아산만 당진시 해안



신라의 미소

백제의 미소, 마애불



속리산 법주사 5층탑



속리산 정2품 소나무

상대의 전부를 알 수 없다고 느낀 순간 더욱 큰 존재로 다가온다.

한국에서 ‘러브 레터’, ‘릴리 슈슈의 모든 것’, ‘하나와 엘리스’ 등의 작품으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이와이 순지 감독.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이와이 순지 기획전 - 당신이 기억하는 첫 설렘’이 개최되었다. 한국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방한한 이와이 순지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영화 인생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금까지도 영화제 등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이나 부산에 많이 오는데, 너무 빈번하게 오다 보니 정다운 느낌이 듭니다. 영화제 관계로 부산에 갔을 때는 행사장을 둘러보거나, 제가 술을 좋아해서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곤 합니다.

이와이 순지 감독의 ‘Love Letter’는 한국에서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점이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다고 보십니까.

영화의 테마가 한국 분들께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를 만든 시기는 일본의 버블기로, 제 안에 당시의 트렌드와 상관 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Love Letter’의 테마는 ‘인간은 연인이나 부부끼리라도 상대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음을 이해하고서야, 비로소 상대의 ‘존재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여자(와타나베 히로코)가 모르는 남자 친구의 에피소드를 중학교 시절로 설정했는데, 사실 ‘Love Letter’는 중학교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중학교 시절을 묘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중학교 시절을 그리는 것과 매우 흡사해서, 제 추억은 아니지만, 제 추억을 각색해서 닥치는 대로 후지이 이쓰키(주인공 남자 친구의 중학교 동급생)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갔습니다. 의외로 제 중학교 시절과 겹치는 부분이 많더군요. 1년 동안, 중학생 때 들었던 음악을 듣는 등, 열심히 추억을 떠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これまでも映画祭などで何度か韓国を訪問されていると伺いました。改めて韓国の印象をお聞かせてください。

私はソウルか釜山が多いですが、結構、頻繁に来ていて、懐かしい感じを受けています。映画祭関係で釜山に行った際には会場を回ったり、私はお酒が好きなので夜には屋台に行って「ソジュ」を飲んだりしています。

岩井監督の『Love Letter』は韓国内で大きなブームを巻き起こしました。どういう点が韓国の方々の琴線に触れたのだと見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映画のテーマが韓国の方々に合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気がします。映画を作った時代は日本のバブル期で、自分の中では当時のトレンドとは関係なく、自分が作りたいものを作ろうという考えがありました。『Love Letter』のテーマは「人間は恋人同士であっても、夫婦であっても、相手の全てを知ることが出来ない。知り得ないことを理解してこそ、はじめて相手の存在の大きさが分かる」というものでした。主人公の女の子(渡辺博子)の知らない彼氏のエピソードを中学校時代に設定したのですが、実は『Love Letter』は中学校時代を懐かしみながら作りました。実際に映画の中で中学校時代を描くということは自分の中学校時代を描くことと非常によく似ていて、自分の思い出ではないのですが、自分の思い出をアレンジしてアトランダムに藤井樹(主人公の彼氏の中学校時代の同級生)のエピソードを作っていました。意外と自分の中学校時代と重なる場所が多かったと思います。1年間、その当時に聞いていた音楽を聴くなどして、一生懸命、その思い出を思い出す作業をずっとやっていました。

이번에 국제교류기금 주최로 기획전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 기획전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의 소감은. 그리고 이번에 한국 팬과의 교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류를 기대하시나요.

이런 형태로 기획전을 하는 건, 한국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기획전을 자주 하고 있는데, 학교 등으로 초청되어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로부터도 여러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와이 감독의 작품 속에는 사랑, 이치메(왕따), 일상, 비밀상, 다양한 주제가 그려지고 있는 듯 합니다. 게다가 감독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각본·소설, 음악, 애니메이션 등 매우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 테마를 다루고, 또 재능을 키운 바탕은 어디에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어린 시절에 ‘꿈꾸기 좋아하는 아이’라 혼자서 이야기 등 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로서, 고교시절에 미술부면서 소설가를 목표로하거나, 대학에 들어가서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대로는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만화가가 되려 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시절 찍은 영화에 제가 음악을 넣고 싶어서 피아노 등을 연습하거나 음악도 만들었습니다. 대학시절에 미술, 만화, 소설, 영화, 음악 등을 취미·학업으로 했는데, 이를 전부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대학시절은 영화나 소설가 같은 프로를 꿈꿨던 것이 아니라, 뭔가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는 생각했지만, ‘이것밖에 안 할거야가 아니었어요. 만화가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직업이라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대학 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했죠. 토대는 대학시절에 확립되는 듯 합니다. 당시, 대학교수가 ‘학자도 학창시절에 문득 생각한 이론을 남은 인생 동안 검증해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안되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장래에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되어야겠다’는 기분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만든 음악도 어레인지해서 영화에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일본어 가사를 쓰는 건 부끄러워 영어 가사로 고쳤지만요(웃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최신작으로 ‘립벤윙클의 신부(リップヴァンウィンクルの花嫁)’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주인공으로 기혼자를 묘사한 것은 처음인데, 이제야 좀 어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웃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분위기가 있는 현대적이고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도쿄인데 ‘거기서 살아가기는 힘들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순식간에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잘 지내면 좋을지 알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와 이어지면 좋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영정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서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今回、国際交流基金の主催で企画展が開催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この企画展のお話をお聞きになった時の感想は。また、今回、韓国のファンとの交流もあると伺いましたが、どのような交流を期待されておりますか。

このような形で企画展を行うのは韓国では初めて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本当にありがたいですね。日本や中国では企画展をよくやっていますが、学校などに招かれ、映画をどのように作っているのかなどを話しています。韓国のファンの方からも色々なお話が聞けたいなと思います。

岩井監督の作品の中には、愛、いじめ、日常、非日常、様々なものがテーマとして描かれているように思われます。さらには、監督としての役割のみならず、脚本・小説、音楽、アニメ等、非常に多くの才能を発揮しておられます。このように、多様なテーマを扱う、また、多様な才能を育んだ素地がどこにあったと御自身では考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二つあったと思います。一つは、私は子供の頃は「夢見がちな子」だったので、独りで物語などを空想しているのが好きでした。もう一つは、社会人になるための準備として、高校時代は美術部にいながら小説家を目指したり、大学に入ってから映画を撮り始めたりしていました。また、このままでは社会に出て食べていけないと考え、漫画家を目指したこともあります。大学時代に撮った映画に自分で音楽をつけなくなったのでピアノなどを練習し、音楽も作りました。大学時代に美術、漫画、小説、映画、音楽などを趣味・学業としてやりましたが、それを全て生かすことができているのは幸運なことであり、ありがたいことと思います。高校、大学時代は映画や小説家のプロを目指していたわけではなく、何かクリエイティブなものをつくる仕事をしたいとは考えていましたが、「これしかやらない」というものはありませんでした。漫画家が最もアクセスしやすい職業であったので、トライしたこともありましたが、結局、大学時代に映画を作っていたので、それが一番得意でした。土台というのは大学時代に確立されているようです。当時の大学教授に「学者も学生時代に思い付いた理論について残りの人生で検証していく。だから、今思い付かないと駄目なんだ」と言われたことがあります。それを聞いて「将来クリエイターになるのではなく、今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という気持ちになったのを覚えています。当時に作った音楽もアレンジして映画に使ったこともあります。当時の日本語の歌詞を使うのは恥ずかしかったので英語の歌詞に変えましたが(笑)。

今後の御活動について、お聞かせ下さい。

最新作として『リップヴァンウィンクルの花嫁』が公開される予定です。ヒロインとして既婚者を描くのは始めてで、やっと少し大人になったのかもかもしれません(笑)。『不思議な国のアリス』のような雰囲気がある現代的で身近な物語です。舞台は東京ですが、「そこで生きていくのは大変で、ボタンを掛け間違えとあつという間に居場所をなくしてしまう」、このような世界で生きていくためには、誰と仲良くしていけばいいのかわかりにく時代だと思います。「いったい誰とつながっていけばいいのか」と悩む女の子の波乱万丈な人生の旅のような物語です。日本より先に韓国で公開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



제24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2015년 10월 12일 사가현 가라쓰시, 우측에서 2번째 : 이낙연 전남도지사, 좌측에서 4번째 : 아미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사가현 지사)

우호교류협정체결 5주년! 사가현과 전라남도의 우호교류

사가현

사가현은 규슈 북서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후쿠오카현(福岡県), 서쪽은 나가사키현(長崎県)에 면해 있으며, 북쪽에는 겐카이나다(玄界灘), 남쪽에는 아리아케카이(有明海)가 있다. 도쿄까지 직선거리로 약 900km, 오사카까지 약 500km인데 비해 한반도까지는 약 200km 미만으로 지금까지 대륙문화의 창구로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면적은 약 2,400km², 10시(市) 10정(町)으로 구성되며 인구는 약 83만명이다.

풍요롭게 펼쳐지는 사가평야와 겐카이나다·아리아케카이라는 두 바다가 있는 천혜의 지형으로 농수산업이 활발하며 사가비요리(쌀), 사가귤(소), 사가노리(김), 우레시노차(녹차) 등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농산물이 많다. 또한 2016년에는 사가현을 대표하는 공예품의 하나인 아리타야키(有田焼, 도자기)가 도조 이삼평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하지 400년을 맞이한다. 현재, 유럽의 유명 레스토랑과 합작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아리타야키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우호교류협정체결까지

사가현과 전라남도의 교류는 1992년 8월 제주도(당시)에서 열린 '제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지 사 교류회의(2008년부터 교류 지사회의로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바다를 끼고 마주보는 일본측 4현(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아미구치현, 사가현)

문의처

사가현 국제·관광부 국제경제·교류과
TEL +81-952-25-7004, FAX +81-952-25-7084
e-mail kokusaikeizaikouryuu@pref.saga.lg.jp
HP www.pref.saga.lg.jp/web/



우호교류협정체결(2011년 1월 25일 사가현 사가시, 좌 : 박준영 전 남도지사(당시), 우 : 후루카와 야스시(古川康) 사가현 지사(당시))



순천만국가정원(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 사가현 정원 (전남 순천시)



사가현, 전남 초등학생 축구 교류(2014년 8월 18일, 전남 목포시)

과 한국측 4개 시도(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멤버로서 두 지역의 발전 및 우호관계 촉진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자연이 풍요롭고, 농업이 활발하다는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진 사가현과 전라남도의 양자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1996년부터 사가현 직원과 전라남도 직원의 상호파견이 시작되었다. 또한 관광과 여성정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찰 등을 실시하며 상호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 직원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교류 및 산업,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국 사가현과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우호교류협정서 내용 발췌

1. 사가현과 전라남도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교류를 중심으로, 두 지역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추진한다.
2. 산업, 환경, 의료,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지역간 교류를 추진한다.

교류 실적 소개

우호교류협정체결 후 행정관계자 뿐만 아니라 현민을 포함한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소개한다.

2012년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매년 11월 사가현 가라쓰시(唐津市)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축제 ‘가라쓰군치(唐津くんち)’의 주역 중 하나인 히키야마(曳山) 히류(飛龍, 용을 본뜬 총높이: 약 6.2m, 무게: 추정 1.4톤의 대형 조형물)를 페어리드에 등장시키며 박람회장의 분위기를 띄웠다. 또한 사가현 내 청소년 35명을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파견했다.

2013년에는 사가현의 유일한 폴코스 마라톤 대회인 ‘사가 사쿠라 마라톤(さが桜マラソン)’에 전라남도의 시민주자를 초청했다. 그리고 사가현에서는 그 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사가현 정원을 출전했다. 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은 현재도 보존되어 있고 2015년 8월에는 한국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었다.

2014년 8월에는 사가현 초등학교 2팀 32명이 전라남도 초등학교팀과 축구를 통해 어우러져, 말이 통하지 않는 가운데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즐겁게 교류했다. 이 외에 학교간 상호교류 및 교직원간 상호교류, 민간단체 상호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호교류란

사가현은 올해 전라남도와의 우호교류협정체결로부터 5년이라는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했다. 5년이라는 역사는 그리 깊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부터 직원상호파견으로 총 30명에 가까운 직원이 양국을 오가며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있다. 또한 사가현 내 시정(市町)과 전라남도 내 시군이 교류하고 있고 사가현 가라쓰시와 전남 여수시가 자매도시체결, 사가현 가시마시(鹿島市)와 전남 고흥군이 우호결연도시를 체결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국가차원의 정치적 긴장도 있어 정체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므로 지역차원에서 유연한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우호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사가현은 전라남도와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우호 발전을 위해 견고히 준비하고자 한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 양국의 우호 발전,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웅장한 자연과 풍부한 역사!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마구치현



360°의 절경, 아키요사다이

혼슈(本州)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야마구치현(山口県)은 동쪽으로 히로시마현(広島県)과 시마네현(島根県), 서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규슈(九州)의 후쿠오카현(福岡県)이 있다.

한국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매년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다. 야마구치현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오고 있다.

야마구치현은 약 1,50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이 있고, 부드러운 다도해와 거친 침식해안의 아름다움이라는 다른 표정이 있으며, 남북으로 뻗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3면이 바다로 열려 있고, 풍요로운 산으로 둘러싸인 야마구치현은 산해진미가 풍부하다. 또한 깨끗한 물로 만든 일본 술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 내 곳곳에는 개성 강한 온천마을이 많다. 산간의 조용한 온천,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온천, 명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 족욕 순례를 즐길 수 있는 온천, 복고풍이 감도는 정취 있는 온천, 뛰어난 효능을 갖춘 온천 등 수질과 로케이션도 다양하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이번에는 야마구치현의 추천 관광지를 몇 군데 소개한다.

문의처

HP <http://www.visit-jy.com/korean/>

TEL +81-83-933-3160

e-mail a16200@pref.yamaguchi.lg.jp

블루라인 쓰노시마 대교

2000년에 개통한 쓰노시마(角島) 대교는 통행료가 무료인 낙도를 잇는 다리로서 1,780m라는 일본 굴지의 길이를 자랑한다. 이 지역 특유의 푸른 바다에 걸린 쓰노시마 대교를 건너면 그곳이 바로 국정공원 쓰노시마다. 쓰노시마는 최초 점등 이래 13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매일 점등하고



있는 쓰노시마 등대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투명한 바다, 희고 고운 모래사장으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수욕장 등 매력적인 장소가 있으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주 영화나 광고 촬영지로 꼽히고 있다.

<http://www.visit-jy.com/korean/spot/detail.php?id=34>

파워스포츠, 모토노스미 이나리신자



모토노스미 이나리신자(元乃隅稻成神社)는 1955년 시마네현 쓰와노정(島根県 津和野町) 다이코다니 이나리(太鼓谷稻成)에서 분령(分靈, 신사의 영을 나누어 다른 신사에 모심)된 신사다. 관광명소 류구노시오후키(龍宮の潮吹)에서 이어지는 123기의 붉은 도리이(鳥居, 문)와 푸른 바다의 대비가 인상적이며, 미국의 뉴스전문방송국 CNN이 발표한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31선’에도 선정되었다. 참배길 출구에 세워진 오토리(大鳥居) 위에는 새전(賽銭)이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일본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새전함’이 있다. 지상에서 약 5m 높이에 있어, 새전을 집어 던져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http://umiplus.jp/category/_ko/spot.html

360도 파노라마의 절경, 아키요시다이

일본 최대급 카르스트 대지인 아키요시다이(秋吉台)는 4,502ha가 국정공원으로 1,384ha는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3억년 전, 바다 속에서 산호초로 태어난 석회암이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었다. 카르스트 로드를 드라이브하면서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전망대에서 360° 파노라마의 절경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대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트레킹과 트레일 런닝도 인기가.

또한 대지의 지하에는 빗물에 의해 용식된 중 유동이 다수 산재하고 있으며, 가장 유명한 아키요시도(秋芳洞)는 일본 최대급으로 동굴 안 온도가 사계절 내내 17℃로서 쾌적하게 볼거리를 찾아볼 수 있다.

<http://www.visit-jy.com/korean/spot/detail.php?id=48>

일본의 3대 명교, 긴타이교



일본 3대 명교(名橋) 중 하나인 긴타이교(錦帯橋)는 니시키가와(錦川)에 걸린 다섯 개의 아치를 이루는 목조다리로서 길이가 193.3m, 폭이 5m다. 약340년전 창건된 이래 유출과 재건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봄 벚꽃, 여름 청류(清流), 가을 단풍, 겨울 설경과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또한 긴타이교 주변에는 이와쿠니성(岩国城) 등 볼거리가 많다. 여름에는 긴타이교를 배경으로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야가타부네(屋形船)를 타고 유람할 수 있다.

<http://www.visit-jy.com/korean/spot/detail.php?id=28>

국보 루리코지 오층탑



국보인 루리코지(瑠璃光寺) 오층탑은 약600년 전, 이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가 전쟁에서 숨진 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했다고 한다. 높이가 31.2m이며, 지붕은 편백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시공된 히와다부키(檜皮葺)로서, 그 아름

다음은 나라현 호류지(法隆寺)와 교토부 다이고지(醍醐寺)와 더불어 일본 3대 명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계절별로 바뀌는 풍경과 조명이 켜진 밤도 볼거리 중 하나로서 인근 유다온천(湯田温泉)에서 숙박하고, 관광을 즐기는 계획도 인기가.

<http://www.visit-jy.com/korean/spot/detail.php?id=95>

세계유산 하기의 산업유산군



하기(萩)의 5개 유산을 포함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 유적군은 규슈와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8현 11시에 총23개 유산이 있다. 하기 지역은 하기한샤로(萩反射炉), 에비스가하나(恵美須ヶ鼻) 조선소터, 오이타야마(大板山) 제철유적, 쇼카손주쿠(松下村塾), 하기 성하마을(萩城下町) 5개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도 막부 말기에 서구 기술을 받아들여 산업화를 지향한 하기(초슈(長州)번(藩))의 전체 모습과 그 특징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http://www.oidemase.or.jp/sekaiisan>

<http://www.visit-jy.com/korean/spot/detail.php?id=97>

마무리

지금 소개한 관광지는 아주 일부로서 야마구치현에는 이 외에도 매력이 많다. 올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과 야마구치우베(山口宇部)공항 간에 국제연속 전세편이 운항한다. 한국과 야마구치현이 부쩍 가까워지기 때문에, 야마구치현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분도, 아직 가보지 못한 분도 꼭 야마구치현을 찾아 그 매력을 느껴보기 바란다.

(협력: CLAIR, Seoul)

일본 추고쿠지방 사케의 특징



누룩방, 아시히주조(돗사이)

주)

노우준 아마쿠치(濃醇甘口) 진하면서 감칠 맛이 좋고, 단 맛.
 단레이 아마쿠치(濃醇辛口) 맛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면서 단 맛.
 단레이 가라쿠치(淡麗辛口) 맛이 깨끗하고 부드러우면서 드라이한 맛.



저장고, 시라기쿠주조



저장탱크, 치요무스비주조

돗토리현

돗토리현(鳥取県)은 다이센을 비롯한 추고쿠(中國) 산지의 용설수(融雪水)를 양조용수로 사용하여 촉감이 부드러운 가라쿠치 사케가 있는 반면, 주조미인 고리키(強力)를 사용한 진하고 향기 좋은 사케도 제조하고 있다.

요나고(米子), 구라요시(倉吉), 돗토리 이 외 각지에 약30개의 양조장이 분포한다. 현 산 주조미인 다마사카에(玉栄) 이 외에 옛날 품종을 부활 시킨 고리키가 유명하다. 이즈모토지(出雲杜氏)에 이어 다지마토지(但馬杜氏)도 많이 분포한다.

대표브랜드 치요무스비(千代むすび), 다카이사미(鷹勇), 이나타혼텐(稲田本店)

시마네현

이즈모(出雲) 신화의 니혼슈 발상지로 알려진 시마네현(島根県), 전통과 우수한 기술을 자랑하는 이즈모토지(出雲杜氏) · 이와미토지(石見杜氏)의 기술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풍부한 자연, 고품질의 주조호적미로 최상급 사케를 제조하고 있다.

마쓰에(松江), 이즈모, 마스다(益田)를 중심으로 35개 양조장이 분포하

며, 전형적인 노우준 아마쿠치 타입을 제조하고 있다. 현의 주조미인 ‘사카니시키(佐香錦)’를 포함하여 가이료오마치(改良雄町), 가미노마이(神の舞) 등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브랜드 오로쿠(王祿), 리하쿠(李白), 이즈모후지(出雲富士)

오카야마현

오카야마현(岡山県)은 풍부한 식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향토요리가 발달하여, 개성 있는 사케가 만들어지고 있다. 빗추토지(備中杜氏)라 불리는 토지(杜氏, 각지방 사케 장인의 부류)집단의 기술을 이어가며, 경쟁하고 잡미가 적고 마시기 좋은 단레이아마쿠치 사케를 제조하고 있다.

요시이가와(吉井川), 아사히가와(旭川), 다카하시가와(高梁川) 유역을 중심으로 약50개 양조장이 분포하며, 현산 주조미인 오마치(雄町)가 유명하다. 감칠 맛이 강한 노우준 타입부터 부드러운 맛의 단레이 타입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케가 제조되고 있다.

대표브랜드 사케히토스지(酒一筋), 고젠슈(御前酒), 시라기쿠(白菊)

히로시마현

비옥한 토지에서 재배되는 주조미와 온화한 기후풍토와 환경에서 제조되는 히로시마(広島県)의 사케. 연수양조법으로 만들어 촉각이 부드럽고 향기로우며 감칠 맛이 좋은 ‘히로시마사케’의 독특한 맛이 특징이다. 일본 굴지의 사케제조지인 사이조(西条) 이 외 각지에 60개 양조장이 분포한다.

현 산 주조미인 핫탄(八反), 핫탄니시키(八反錦) 이 외에 히로시마 21호 등의 효모도 다수 개발하고 있다. 명확한 단 맛과 부드러운 맛이 난다.

대표브랜드 다케쓰루(竹鶴), 우고노쓰키(雨後の月)

야마구치현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목적으로 하며, 야마구치현(山口県)산 주조미, 효모, 물에 특화한 사케를 생산하고 있다.

도쿠야마(徳山), 하기(萩)를 중심으로 40개 양조장이 분포한다. 현 산 주조미인 고쿠료미야코(穀良都), 사이토노시즈쿠(西都の雫)를 비롯하여 야마구치 벚꽃에서 분리한 효모 등도 사케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우준 아마쿠치 타입이지만, 최근 경쟁하고 섬세한 맛의 사케도 활발히 제조되고 있다.

특히 모든 상품에 단 하나의 주조미인 ‘야마다니시키(山田錦)’를 사용하고, 전 상품을 준마이다이긴조(純米大吟醸)로 제조하는 아사히주조(앗사이(獺祭))의 사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대표브랜드 닷사이, 간기(雁木), 다카(貴)



고시(술 찌는 과정), 아사히주조



정미기, 시라기쿠주조



치요무스비주조

추억의 장난감전 & 일본의 설풍경전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신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한다. 신년 일본문화소개전은 매년 1월 실시하는 정례행사로서 올해는 '일본의 설풍경' 전시와 함께 '추억의 장난감전'을 개최한다.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써 공작교실, 초등학교 일본문화체험교실, 떡메치기, 일본영화 상영회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전시장에서는 기간 중 일본의 설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와 60~80년대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마련된다. 무료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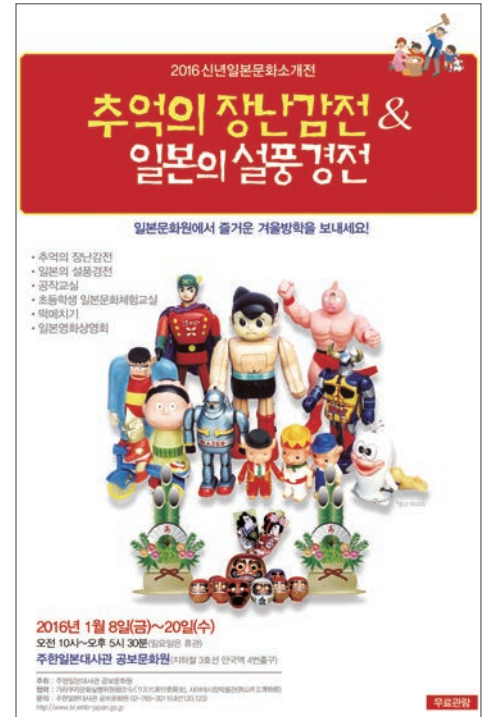
일시 2016년 1월 8일(금)~20일(수)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협력 가라쿠리문화실행위원회(からくり文化実行委員会), 시야마시립박물관(狭山市立博物館)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123) <http://www.kr.emb-japan.go.jp>



일본의 설풍경전



일본의 설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소품 전시와 함께 전통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 다타미 위에 앉아 실제 고타쓰(전통 난방기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새해의 다짐 등을 붓글씨로 남기는 가키조메, 12간지 중 병신년(丙申年)의 원숭이가 그려진 카드인 에마에 소원 적어 걸기와 새해 운수를 점쳐볼 수 있는 오미쿠지 뽑기, 일본의 전통 떡방아를 이용한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일시 2016년 1월 8일(금)~1월 20일(수) 10:00~17:30분(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추억의 장난감전



일본의 60~80년대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완구, 양철완구, 인형 등이 전시된다. 또한 당시의 일본 어린이들이 즐기던 갖가지 놀이들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당시의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와 유사한 점도 많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일시 2016년 1월 8일(금)~1월 20일(수) 10:00~17:30분(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 1월 19일(화) 13:30~16:00, 1월 20일(수) 15:00~15:30에는 당관 실크갤러리에서 일본 시야마시립박물관 직원이며 피아노 연주자인 가와카미 이쿠코(川神育子) 씨의 연주로 후루사토(故郷), 고추잠자리(赤とんぼ) 등 옛 일본 어린이들이 불렀던 명곡을 일렉트릭 피아노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유관람.

공작교실



골판지, 페트병 등을 이용한 간단한 완구 제작을 통해 창의력 개발 및 움직임은 물체의 동력 전달 방법 등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일본문화체험교실과 중복신청 불가.

일시 1월 8일(금) 11:00~12:00 / 14:00~15:00
(골판지로 만드는 펄럭펄럭 애니메이션)
1월 9일(토) 11:00~12:00 / 13:00~14:00
(페트병을 이용한 움직이는 동물·자동차 만들기)
1월 20일(수) 11:00~12:00 / 14:00~15:00
(골판지로 만드는 소리 나는 동물자동차)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협력 가라쿠리문화실행위원회, 사이바시립박물관
모집인원 및 대상 20명, 초등학생 전학년(보호자 참가가능)

참가방법 공작교실 명기 / 날짜 및 시간 / 참가자 성명 / 학년 /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기입 후 이메일(event@so.mofa.go.jp) 접수. 1인 2명까지 접수가능.
예약접수 기간 1월 4일(월)부터 각 체험일 2일 전까지(선착순 마감)

떡매치기



일본의 전통 절구(臼:우스)와 떡매(杵:기네)를 이용해 관람객과 함께 떡을 찧어보고 나누어 먹는 행사를 개최한다.

일시 2016년 1월 8일(금), 19일(화) 15: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참가대상 당일 관람객

가키조메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다짐 등 바라는 것이나 좋은 뜻을 붓글씨로 쓰는 행사. 전시장에 비치된 붓과 종이로 붓글씨를 써볼 수 있다.

일시 2016년 1월 8일(금)~1월 20일(수)
10:00~17:30분(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참가대상 당일 관람객

에마 걸기와 오미쿠지 뽑기



에마란 사찰이나 신사에서 기원할 때, 혹은 기원한 소망이 이루어져 감사의 뜻을 담아 봉납할 때 사용하는 12간지 그림 등이 그려진 나무판을 말한다. 전시장에 서는 에마의 모양을 딴 종이카드에 소원을 적어 걸어 본다. 또 새해의 운수를 점쳐보는 오미쿠지 뽑기도 체험할 수 있다.

일시 2016년 1월 8일(금)~1월 20일(수)
10:00~17:30분(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참가대상 당일 관람객

초등학생 일본문화 체험교실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의 일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직원이 일본문화 소개, 퀴즈대회, 간단공작교실 등을 진행한다. 공작교실과 중복신청 불가.

일시 1월 11일(월), 16일(토), 18일(월), 19일(화)
11:00 / 14: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모집인원 및 대상 각 회당 20명, 초등학생 전학년(보호자 참가가능)

참가방법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 명기 / 날짜 및 시간 / 참가자 성명 / 학년 /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기입 후, 아래 주소로 이메일(event@so.mofa.go.jp) 접수. 1인 2명까지 접수가능.

예약접수 기간 1월 4일(월)~각 체험일 2일 전까지(선착순 마감)

일본영화상영회, 겨울방학 특선가족영화 & 애니메이션

1월 일본영화상영회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겨울방학 특선을 마련했다.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가족영화 4편과 애니메이션 2편, 총6편을 상영한다. 선착순 무료관람.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가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일시 1월 5일(화), 14일(목), 29일(금)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마에다 고기, 마에다 오시로, 오다기리 조

아오이 유우의 편지 ニライカナイからの手紙

일시 1월 6일(수), 21일(목)

감독 구마자와 나오토

출연 아오이 유, 미나미 가호

버니드롭 うさぎドロップ

일시 1월 7일(목), 22일(금)

감독 다나카 히로유키

출연 마쓰야마 겐이치, 아시다 마나, 카리나

로봇G 로보지

일시 1월 11일(월), 28일(목)

감독 야구치 시노부

출연 미키 커티스, 요시타카 유리코, 하마다 가쿠

도라에몽 : 친구의 마계대모험~7인의 마법사~

ONE PIECE カラクリ城のメカ巨兵~7人の魔法使い~

일시 1월 12일(화), 18일(월)

감독 데라모토 유키오

출연 미즈타 와사비, 오히라 메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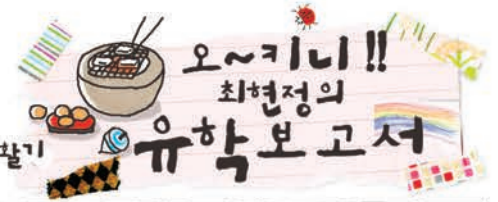
원피스 극장판 : 기계대업성의 메카거병

ONE PIECE カラクリ城のメカ巨兵

일시 1월 13일(수), 19일(화)

감독 우다 코노스케

출연 다나카 마유미, 아마구치 갓페이(목소리)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일본의 신년맞이.

신사에 가서 한해의 건강과 소원을 비는 하쓰모데(初詣)와 새베통(お年玉).

1월1일부터 한꺼번에 꾸러미로 몰려오는 연하장(年賀状)

복을 부르는 시메나와(しめ縄)를 현관에 걸고

집안에 가가미모치(鏡餅) 장식,

일본식 떡국 오조니(お雑煮)

하지만 나의 새해 시작은 작은 사치로 시작된다.

연말이면 제발로 굴러 들어오는 달력 풍년에 우리나라에서 달력 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우체국 교회 치킨집 은행 뒹뒹글~

울 엄마의 노하우 살짝 공개~

처치곤란?

모르는 소리~ 명절 전부칠 때 키친타올 밑에 깔면 기름이 쪽쪽 빠지고 얼마나 좋은데~ 이 사실을 알랑가 몰라~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보통 돈을 주고 사야한다.

숫자만 있어도 좋으니 달력 그냥 나눠 주는 곳 어디 없나~? 100엔도 아까비~

이런 이유로 연말이면 내가 하는 특별한 습관.

우리나라에서는 '창가의 토토'로 유명해진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국민그림 작가 이와사키 치히로.(岩崎ちひろ)

*이와사키 치히로 달력 판매금액의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금된다.

오타 케이문 (おおた慶文)

미즈모리 아도 (水森亜土)

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세대들의 어린시절 향수를 자극케 하는 작가들.

이것도 저것도 죄다 갖고싶어~ 아잉~

동물사진 작가 이와코우 미쓰아키 (岩合光昭)

와아~

결국 그간 내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정 장애'가 발동되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서너개의 달력을 돌돌말아 옆구리에 꺾어 데려오고 말았다.

결국 그간 내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정 장애'가 발동되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서너개의 달력을 돌돌말아 옆구리에 꺾어 데려오고 말았다.

하하하~ 나의 복을 비시며 시메나와까지 보내셨네~

올해는 내 방에 어떤 달력을 걸어 볼까나?

고민하는 것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의 설레임~*

다양한 작가들의 달력도 좋지만 좋아하는 작가의 달력을 매년 기다리는 재미. 2016년 올해는 달의 변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달력이 기대가 된다.

후후~

매일 달의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 살아있는 달력일세~

달력을 돈 주고 사다니 말이 돼? 라고 물으신다면, 글썽 그게 말이 되더라니까요~

아호~ 행복해~

그리하여 다다미 4.5조 좁은 방이 달력 전시장으로... ㅋㅋ